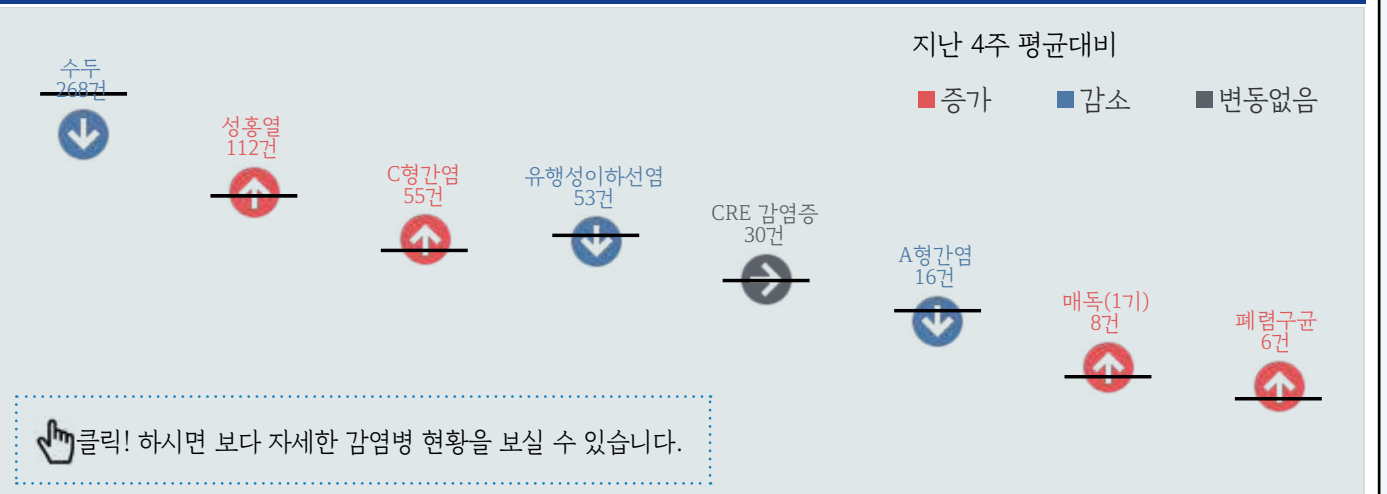


GIDCC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
GYONGGI INFECTIOUS DISEASE CONTROL CENTER

발행일 2018.2.8. (통권 제130호) 발행처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발행인 이희영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4층, 4206호
 전화 031-738-0300 팩스 031-624-5021 홈페이지 <http://www.gidcc.or.kr>

- 이번주는 **수두 268건, 성홍열 117건, C형간염 55건, 유행성이하선염 53건**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폐렴구균**은 지난 4주 평균 대비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지난 해 동기간 대비 증가('17년 : 10건, '18년 27건, 그 중 23명(85%)이 50세 이상)하였습니다.
 - 폐렴구균은 예방접종을 통해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증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후 59개월까지, 65세 이상어르신 무료접종)
 - * 접종대상 : ① 단백결합 백신(10가, 13가) : 생후 2개월 ~ 59개월 영아 및 소아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2개월 ~18세 청소년(기저질환 보유)
 - ② 다당백신(23가) :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2세 이상 소아 ~ 64세 성인(기저질환 보유)
- **국내외 주요 감염병 소식**
 - (국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2주차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이나(전 연령층),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 * 도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 : 1주차 61.2명 → **2주차 62.6명** → 3주차 57.9명 → 4주차 41.8명
 - 겨울방학 이후 개학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을 준수
 - (국외)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루엔자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 A(H1N1)pdm09와 B형(야마가타형)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 이번주에는 **설 연휴에 읽기 좋은 감염병 관련 도서(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감염)**에 대해 소개합니다.

2018년 제5주차 경기도 감염병환자 신고현황



기타 감염병 신고		해외유입
3건	맹기열 홍역 백일해	맹기열 3건
2건	레지오넬라증	
1건	CJD/vCJD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경기도 감염병 주간소식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 감염병 신고현황은, 발행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is.cdc.go.kr)에 제공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7, 2018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로,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신고건을 포함합니다.
 - 별도의 감시체계로 운영되는 결핵, HIV 및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은 제외되었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감염병 이야기

- 설연휴에 읽기 좋은 감염병 관련 도서 -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 네이션 올프 지음 | 강주현 옮김



#메르스 # 바이러스 유행

3년 전 우리 사회는 메르스 사태를 겪었다. 저 먼 중동에서 낙타를 통해 전파된 한 명의 환자가 비행기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안전망들을 피해 많은 사상자와 손실을 입혔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나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닌, 걸린 것만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우리 사회에 여실히 깨닫게 해주었다.

이 책의 저자는 메르스 이전에 이 책을 지었지만 책 곳곳에서는 메르스를 예견하는 통찰력이 드러나 있다. HIV(AIDS 유발 바이러스)나 에볼라바이러스처럼 다른 동물에서 전파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세계화를 통해 어디서 발생하던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의 경고는 슬프게도 한국에서 완벽히 현실화가 되었다.

메르스 유행은 종결이 선언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메르스를 무서워하고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이다. 세계는 좁아졌지만 아직 우리는 세계의 많은 위협이 우리 근처로 오는 것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후반부에 우리가 그 위협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러모로 **바이러스 유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흥미로운 책**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역학조사관 양경호)

<감염> - 로빈쿡 지음 | 홍영의 옮김

#에볼라 #CDC #역학조사관 #생물테러 #음모

로스앤젤레스에서 공포의 감염병 발생! 오한, 발작에 가까운 두통, 설사, 토혈 그리고 죽음, 그러기까지 채 이틀도 걸리지 않았다.

1976년 아프리카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했던 에볼라바이러스병이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제2, 제3의 도시로 확산된다. CDC(질병통제센터)의 신입 역학조사관 닥터 마리스는 역학조사 중 감염자의 기묘한 공통점을 확인하게 되고 그 뒤에 가려진 음모가 있음을 직감하게 되는데....


1987년 출간 당시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감염>은 1995년 국내에서 출판되었고, 메르스가 있었던 2015년 중판으로 다시 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 로빈쿡은 의학스릴러계의 거장으로 돌연변이, 코마 등 30편이 넘는 의학 소설을 집필했다. 실제 하버드 출신의 안과 의사인 로빈쿡은 **에볼라라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감염병 위에 현실성을 더해 빠른 전개와 놀라운 흡입력으로 독자들에게 마치 눈앞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몰입도를 선사한다.**

한편의 감염병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감염>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외에 마버그열, 레지오넬라증 등과 같은 감염병도 등장해 감염병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흥미를 더하며, 미국 CDC와 EIS(Epidemic Intelligence Service)시스템도 엿볼 수 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박은정)



THE WEEKLY NEWS

밑줄을  클릭! 하시면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소식

※ 매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경기도 및 국내 주요 감염병소식을 www.gidcc.or.kr/gypd-type/국내소식에서 한 눈에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겨울방학 후 개학으로 학생 학교생활 시작, 인플루엔자 조기치료와 개인위생 당부! 2.2\(금\)](#)

[\[보건복지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2.2\(금\)](#)

[\[보건복지부\] 브라질 여행 전 황열 예방접종 및 감염 주의 당부 2.5\(월\)](#)

[\[질병관리본부\] 조직위·일본·식약처·지자체, 평창동계올림픽 보안인력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및 확산 방지 2.5\(월\)](#)

[\[보건복지부\] 질병 대응을 위해 정부-학계 손잡다 2.5\(월\)](#)

[\[보건복지부\] 부처 협력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강화 2.6\(화\)](#)

[\[경기도청\] '끝까지 간다' 도 동물위생시험소, AI 확산방지 총력 2.6\(화\)](#)

[\[보건복지부\] 평창올림픽 감염병 검사 위해 중앙-지방자치단체 뭉쳤다 2.6\(화\)](#)

[\[보건복지부\] 해외유입감염병 심각성 인지해도, '난 안 걸려' 생각 다수 2.7\(수\)](#)

[\[질병관리본부\] 평창동계올림픽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등 확산방지 총력 2.7\(수\)](#)

[\[보건복지부\] 치료제 없는 '수족구병' 기술이전으로 국산 백신 개발 진입 '시동' 2.8\(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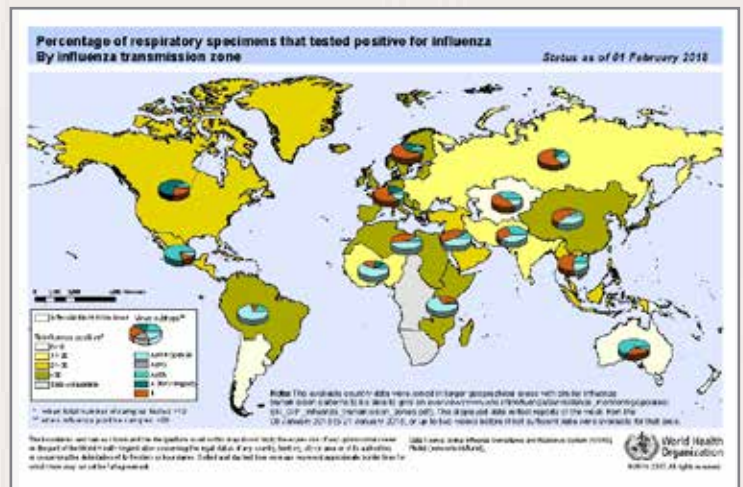
해외 감염병 발생 소식

※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감염병집단소식(DONs)은 www.gidcc.or.kr/gypd-type/국외소식에서 번역된 전문을 확인 하세요.

인플루엔자(Influenza) - 세계보건기구(WHO)

* 2018.2.5 작성(2018.1.21까지의 결과)

- 남반구 온대지역에서는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반면, 북반구 온대지역에서는 인플루엔자 발생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음
-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A형이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몇 주 사이에 B형(대부분 야마가타형)이 증가하였음
- 현재까지 인플루엔자 시즌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루엔자가 예년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상회하였고, 입원기간과 중환자실 입원 수준이 이전 시즌의 최고치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하였다고 보고하였음
-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인플루엔자 활동이 있는 국가 및 시즌에 진입하는 국가들이 적절한 사례 관리, 감염관리 조치 준수, 고위험 집단에 대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
-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루엔자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 중. 특히 인플루엔자 A(H1N1)pdm09와 B형(야마가타형)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었음



<WHO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Influenza Update N°308(18.1.21. ; 18.2.5. 작성))



골똥골똥 독감(인플루엔자)이 뭐예요?

2018.01.16

올해 유난히 기침이나 몸살로 고생하는 친구들 많죠? 작년 12월부터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번 독감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니, 증상을 꼼꼼히 살피고, 독감 예방법을 따라 배워볼까요?

2/10

2018.01.16

감기 ≠ 독감

독감(인플루엔자)은 독한 감기? NO~!!

같은 듯 다른 감기와 독감, 과연 같은 병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보통 감기와 다른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상황에 맞는 치료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3/10

2018.01.16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형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의 차이가 궁금해요!

감기는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사계절 내내 걸릴 수 있어요.
독감은 주로 겨울이나 다음 해 봄까지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으로
A형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4/10

2018.01.16

다음 증상이 보일 경우 당장 병원으로!

독감에 걸리면 갑작스런 발열과 함께
온몸의 근육통,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과 기침, 콧물,
목통증 등의 호흡기 증상이 심하게 온답니다.

5/10

2018.01.16

독감(인플루엔자)은 치료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해요!

독감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독감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친구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해요.

6/10

2018.01.16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기침할 때 후지거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기침이나 기침이 나열이면 마스크를 써주세요.

7/10

2018.01.16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30초 이상 손을 씻는
올바른 손씻기를 지켜주세요
(외출 후, 배변 후, 기침 후 등)

8/10

2018.01.16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면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아주세요!
다른 친구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회복 될 때까지
이들간 학교, 학원 등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9/10

2018.01.16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지 않게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꼭꼭 지켜주세요!**

10/10